

LS증권 시대 이끈 ‘소통하는 형님’… 톱10 증권사 꿈꾸다

CEO 리서치 김원규 LS증권 대표

“고객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최고의 금융투자회사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것입니다”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 취임 후 과감한 사업 다각화와 직원들과의 소통 리더십으로 회사를 탄탄한 중형사 반열에 올렸다. 그는 올해 LS그룹사로의 전환을 계기로 다시한번 ‘퀀텀점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브랜드 가치 제고, 시스템 역량 강화, 신사업 진출 등을 적극 추진하며 업계 ‘만형’으로서의 진가를 보여줄 것이라고 공언한다.

◆ 35세 최연소 지점장… 검증된 증권맨

LS증권은 1999년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증권사인 이트레이드증권으로 출발했다. 2015년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 올 초 LS네트웍스가 대주주로 들어오면서 지난 6월 LS증권으로 재출범했다.

김원규 대표는 NH투자증권 전신인 LG투자증권에서 시작해 35세에 최연소 지점장이 되며 일찍부터 두각을 보였다. 이후 금융상품영업팀장, 강남지역 본부장, 퇴직연금그룹장, WM사업부 대표 등 영업부문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대표는 LG투자증권이 우리투자증권으로 합병된 뒤 2013년 대표이사에 선임됐으며, 이후 NH투자증권과 합병되면서 초대 대표이사를 맡아 승승장구했다. 2019년부터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맡은 후 현재까지 회사를 이끌어오며 여의도 증권가의 최고 베테랑 대표가 됐다. 업계에서 김 대표는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형님 리더십으로 경영 안정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대표로 선임된 첫해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빠르게 성장했다. 김 대표가 취임하기 전인 2018년 473억 원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은 2019년 731억원, 2020년 1542억원, 2021년 2254억원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김 대표는 회사가 부족했던 기업금융(IB)부문 강화에 주력하며 성장

을 일궜다. IB 부문의 본부를 6개로 늘리며 조직을 확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1세대 전문가인 봉원석 부사장을 IB사업부 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전문 인력 영입으로 경쟁력 확보에 집중했다. 그동안 브로커리지, 자기매매(PI) 등에 치우쳤던 수익구조를 IB부문을 키워내면서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다.

력기증권 출신 정통 증권맨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 취임 LS증권 사명변경… 성장 주도

IB부문 수익은 2018년 218억원에서 2019년 517억원, 2020년 679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1년에 1245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김 대표는 취임 20여 일 만에 9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추진한 데 이어 2020년 1200억원 규모의 제3차배정 전환우선주 증자를, 2021년에 600억원 규모의 제3차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몸집을 불렸다.

이에 따라 회사 자기자본 규모를 2018년 말 4037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8709억원으로 끌어올리며 중형 종합 증권사로 외형을 갖췄다.

◆ 사업 다각화·경영 안정화 주도… ‘톱 10’ 증권사 비전

김원규 대표는 사명 변경과 함께 ‘톱 10’ 증권사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LS증권

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김대표의 앞에 놓인 과제가 너무나 많다. 현재 LS증권의 자본력은 국내 증권사 중 21위에 머물러 있다. 목표하는 톱 10 증권사가 될려면 연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늘려야 한다. 또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직면한 실적 악화를 극복해야 한다.

이에 김 대표는 IB 부문 강화로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LS증권으로 사명 변경 전 기존 부동산투자본부를 ‘종합금융본부’로 바꾸고 업무 책임자로 하나증권 출신의 유병수 상무보를 선임한 데 이어 지난 6월 사명 변경 후에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주식발행시장(ECM), 채권발행시장(DCM) 등 전통 IB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IB사업부 내부에 있던 기업금융본부를 독립시킨 뒤 최고경영자(대표) 직할로 소속을 변경하고 기업금융본부장을 전무급으로 격상했다.

그외 글로벌영업본부는 글로벌 비즈

니스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글로벌비즈본부’로 변경했다. 기관영업본부의 파생영업팀은 업무 확장성을 표현하고 대외 이미지 제고하는 차원에서 ‘패시브솔루션팀’으로 바꿨다.

IB·부동산·글로벌 역량 강화 토큰증권 등 신사업 적극 추진 “고객 성공 위해 끊임없이 도전”

LS증권이 9년 만에 범LG(家)로 돌아간 만큼 김 대표는 무엇보다도 LS그룹과 시너지를 주도해야 LS증권의 고속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LS그룹의 상장이나딜을 주관한다면 LS증권의 빠른 성장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미 회사는 LS그룹 계열사 자금 조달에 꾸준히 참여해 실적을 내고 있다. LS 자회사인 LS일렉트릭 주식 29만900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통해 주당 21만2500원에 매입하는 635억원대의

위탁투자증개를 맡았다.

LS일렉트릭이 지난해 10월 발행한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도 인수 단으로 참여했으며, 지난해 12월 LS머트리얼즈의 기업공개(IPO) 당시 인수 단으로 참여해 48억원의 주관 실적을 쌓았다.

LS증권은 퇴직연금 사업 진출도 준비 중이다. 퇴직연금 사업 영위 시 LS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월하게 적립금 규모도 키울 수 있다. 김 대표가 우리투자증권 재직 당시 퇴직연금그룹장, 연금신탁영업담당 등을 지낸 전문가인 만큼 퇴직연금 사업을 직접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토큰증권(STO) 등 신사업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STO 신사업 팀을 구성하고 꾸준히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솔브릭코리아, 크로스체크 등과 토큰증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데 이어 올해 나이스피앤아이, 스타키퍼와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해는 설립 25주년이자 LS증권 원년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 최적의 리스크 관리를 이어가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더욱 힘을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김원규 LS증권 대표 주요약력

- 1960년 5월 17일 경북 의성 출생
- 1979년 대구상업고등학교 졸업
- 1985년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85년 LG증권 입사
- 1996년 LG증권 포항지점 지점장
- 2005년 우리투자증권 상무보
- 2010년 우리투자증권 전무
- 2013년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 2015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 2016년 금융투자협회 비상근부회장
- 2019년~현재 LS증권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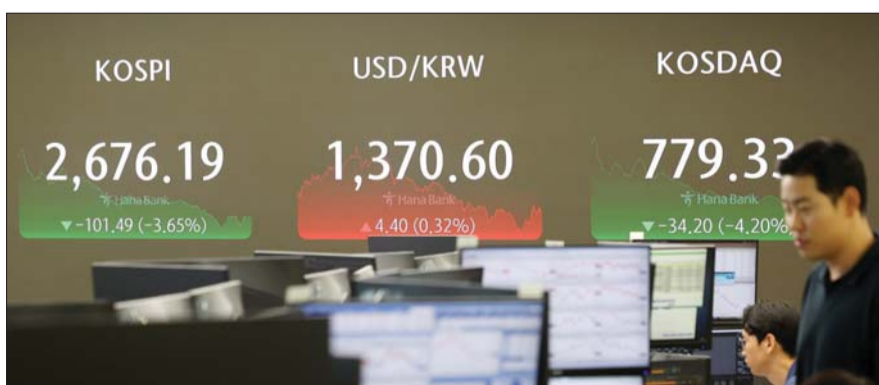
전 세계 경기침체 공포… 韓 증시, 4년만에 최대 낙폭

2일 증가 기준 코스피 101p 하락 금 등 안전자산 위주 수요 이동

미국에서 불거진 경기 침체 우려로 한국 증시는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을 겪으며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트로이온스당 2522.50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2469.80달러에 마감했다.

금값의 상승은 경제 침체나 경기 둔화 징후가 보일 때 나타나는데, 올해 들어서 20% 가까이 올랐다. 지난달 12일 이후 2400달러대에 머물렀지만,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



지난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777.68)보다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에 장을 마감했다. /뉴시스

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05%포인트 하락한 3.976%로 마감했다. 3%대에 진입한 것은 올해 2월 초 이후 처음이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수익률)는 떨어지는 구조이기에, 채권 금리가 내린 만큼 채권 가격이 올랐

다는 뜻이다.

권병재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물 기준 7월 한 달 동안 27bp 하락했지만 회사채 스프레드는 보합됐다”며 미국 회사채 비중 축소하고 미국 국채 비중을 확대할 것을 추천했다.

이처럼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강

해지는 이유는 미국에서 불거진 ‘경기 침체 공포’가 한국 증시까지 영향을 미친 탓이다.

전날인 1일(현지시간)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7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8로 시장 예상치인 48.8보다 낮았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4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4만9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주차(25만8000건) 이후 최대치다.

이에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이틀 연속 나란히 급락했다. 2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51%, S&P500은 1.84%, 나스닥지수는 2.43% 각각 내렸다. 한국 증시도 한국 증시에서 52주 최저가를 찍은 신저가 종목은 코스피 80곳, 코스닥 264곳 등 총 344곳으로 집계됐다. 전 거래일 대비 상승세를 보인 종목은 단 14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고, 35곳이 포함에 거래를 마쳤다. 결국 2일 증가 기준 코스피는 101.49(3.65%) 떨어져 지난 2020년 6월15일(101.48) 이후 4년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코스닥도 34.20포인트(4.20%) 내린 779.32에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주는 ‘R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느냐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5일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하는 7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남아있는 빅테크 실적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린 수요를 다시 증시로 끌어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증권업계는 PMI가 부진할 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및 가이던스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기업의 투자 규모나 실적 관련 매크로 지표 등 실적 요인에 크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